

찬성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조 텐텐은 '친일 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 포함시켜도 괜찮은가' 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다음 세 가지의 논거를 통해 저희가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가와 작품을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친일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시대 상황과 무관한 작품, 친일적 성격이 담기지 않은 작품들도 많습니다. 또한 작가 생활 후반에 친일 행위를 하여 그 이전에 쓰인 작품은 친일과 무관한 경우, 자의가 아닌 협박에 의해 작품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친일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모두 친일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으며, 작품은 작가와 별개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친일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뛰어난 작품을 배제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교과서의 본래 목적은 교육입니다.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실어야 하고, 최대한 문학성이 우수한 작품을 등재해야 합니다. 친일 작가들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우수한 작품을 배제시키는 것은 교육의 지향성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이광수의 무정, 서정주의 자화상, 채만식의 태평천하, 노천명의 사슴. 우리 대부분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작품이며 우리가 그 뛰어난 작품성을 인지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친일 행위를 한 작가에 의해 쓰여진 작품입니다. 이렇게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들까지 친일 작가들이 썼다는 이유만으로 교과서에서 배제해야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친일 작가의 작품을 배제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친일 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 등재하는 것은 오히려 작가의 배경과 친일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18년 문학뉴스가 국민 1092명을 대상으로 "친일 작가들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27.7%인 반면 존치하되 친일 행적을 알리자는 의견이 53.2%, "그대로 둔 채 배경을 알려주자"는 의견이 46.6% 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작정 친일 작가라는 이유로 작품을 통제하기보다는 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친일 작가의 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면 근현대 문학의 발전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는 것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같이 작가와 작품을 별개로 보아야 하며 뛰어난 작품을 배제하는 것은 손해이고 가르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이유로 이번 주제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